

6. 다음 장을 시작하며: 2부-변화에 도전하기

Beginning the Next Chapter Part II - Challenging Changes

인생에 다음 장을 써 나가면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몇 가지 일을 예상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접하게 되는 큰 장애 중 하나는 변화 혹은 변화가 없는 것이다.

- 당신은 변했는데, 고국은 변하지 않았다.
- 고국은 변했는데, 당신이 변하지 않았다.
- 당신과 고국 둘 다 정반대로 변했다.

1장에서 보았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임명되고, 파송되었다(행13:1-3). 그들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교회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이 구원 받은 것을 보고 했다. 안디옥 교회에 상당 기간 머물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다(행14:26-28).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선교 본거지 유다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쳤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과 다툼과 변론을 벌였다(행15:1-2).

이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놀라게 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할례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파송되어, 표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해서 모두가 기뻐했다. 마술을 행하던 시몬조차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예루살렘 선교 본부 지도자들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조사를 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 26-40절을 보면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세례를 주었다. 할례와 연관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무척 놀랐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 받도록 권했다.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교제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 후에는 할례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

셋째, 복음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설교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예루살렘 선교 본부에서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다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어 조사를 시켰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그는 사울(바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와서 1년 간 머물며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기근에 처한 유대에 기금을 보냈다(행 11장). 마침내 할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잠잠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임무가 끝나고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할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선교 본부로 보내어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많은 논쟁 후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디옥 교회에게 결정 사항을 서신으로 보냈다(행15장).

이것이 선교 현장의 한 예시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현장에서 이방인과의 많은 접촉으로 인해 변했으나, 선교 본부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the judiazers)은 변하지 않았다. 반대의 경우, 즉 선교 본부는 변했으나, 선교사들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본인의 변화를 기술하라.

신학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으로(조금 더 많은, 혹은 조금 더 적은 가족 구성원?)

감정적으로 (더 우울한가, 덜 우울한가?)

신체적으로 (치유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을 앓거나?)

세계관 (거시적 혹은 미시적 관점?)

현재 급변하는 문화적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고국을 떠나있을 동안 ‘고국’은 엄청난 문화적 변화를 겪는다. 고국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해 보자.

과학기술 면에서

철학적인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오락면에서

의약품 사용면에서

성에 대한 사회관습면에서

이런 변화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고향’이란 것은 단지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알고 있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과, 안정되고 이완되고 자유스러운 관계의 사람들과의 통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

- 당신은 많은 익숙한 얼굴들을 보지만, 친근한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한다. 그들이 변했다.
- 당신은 익숙한 장소를 보지만, 그곳은 고쳐지고, 새로운 지역적 역할을 한다. 장소가 변했다.
- 당신에게 익숙한 일상을 추구해보지만,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당신은 당신의 고향에서 나그네가 된 기분이 든다.

선교 파견 초기에 ‘타국’에서 느껴지는 나그네 같은 기분보다 ‘고향’이 낯선 느낌에 상당히 놀란다. 당신은 일시적으로 ‘고아’가 되고, 사회 활동의 중심에서 벗어나 모퉁이 주변에서 활동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된다. 좋은 점은 당신이 현지 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던 것처럼 당신이 원하면 고국 문화의 한 부분이 다시 될 수 있다. 삶의 다음 장을 써갈 때 당신은 다시 고향에 있는 것 같을 것이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